



지상파 HD 재송신 중단사태, 현실로

KT스카이라이프, “성실히 협상하겠다”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MBC HD채널의 수도권 재송신이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중단됐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성지용 수석부장판사)는 KT스카이라이프가 4월 6일자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MBC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수도권 지역 74만여 KT스카이라이프 HD 가입자들은 13일 오전 6시부터 MBC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 29일 MBC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 HD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한지 정확히 2주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자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 28일자 해지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공성 등에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

부는 또 “MBC는 KT스카이라이프가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언제든지 방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MBC의 재송출 중단 결정은 KT스카이라이프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지위남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KT스카이라이프는 무척 당황하는 분위기다. 12일 오전까지 “HD방송 송출이 중단되더라도 SD방송을 대체해서 재송신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던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판결 직후 “시청자들에게 HD방송을 중단하게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MBC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가입자의 불편과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MBC가 HD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실친 이상, 25일로 예고된 SBS HD 송출중단도 연이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KT스카이라이프는 설상가상,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13일과 19일 두 차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지상파와 케이블SO와의 변론재판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케이블SO에게 “지상파에 HD방송을 재송신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으나 케이블SO가 이에 불복한 바 있다.

한편, MBC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별기고] TV 유휴대역 이용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

방송 주파수 대역은 국민에게는 산소와도 같은 대역이며, 전파의 그린벨트와 같은 소중한 대역이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로 방송 주파수 대역에 통신 서비스를 채워넣으려는 정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3면

[칼럼]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다시 생각하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로 녹화된 DTV 방송프로그램은 방송 화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불법적 다수에 대한 불법적 배포를 넘어 편집이나 가공 등을 거쳐 재사용될 우려가 있다. ▶ 4면

[인터뷰] SBS 방송지원본부 기술팀 방송기기정비실 전신우

방송은 그 어느 활동보다도 다양한 전자전자장비가 활용되는 분야이다 보니 '정비팀'은 어느 방송사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송기기정비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한다. ▶ 5면

TV유휴대역 활용논의, 국내도 '꿈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 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CR-SDR 포럼이 주관하는 TV유휴대역(White Space) 이용정책 세미나가 지난 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최됐다.

TV유휴대역이란 '디지털 TV 방송대역 중 지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일컫는 것이며, 미국 FCC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서 방송 전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주파수를 무선인터넷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실시된 TV유휴대역 정책의 시사점과 국내 도입 기반마련을 위한 기술 기준 및 가용채널 확보

방안, 서비스 확산·산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TV유휴대역 활용에 대한 접근이 시도됐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는 “지역사회 활성화·유비쿼터스 실현·신시장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송실대 이원철 교수)”, “가용주파수 현황·수요 등 환경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는 비면허·간섭회피 방식을 채택(KCA 이승훈 부장)”, “이미 사용 중인 서비스를 보호하면서도 가용채널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ETRI 홍현진 팀장)”, “유럽·미국·일본·싱가포르 등에서 관련기술들이 개발 중(ETRI 정병장 팀장)”, “올해 4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모델 발굴·실험서비스 등



을 시행할 계획(KCA 이동성 부장)”, “적극적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RAPA 정찬형 부장)”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시간에는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 송실대 이원철 교수, ETRI 홍현진 팀장, 서울시 김형욱 통신사무관, 소방방재청 정안식 서기관, KT 유희열 부장, KBS 김철성 부장, LG전자 김병훈 상무, 브로드웨이브 이태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

요중인 대부분의 패널들은 '1차 사용자인 TV 방송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위치DB구축·센싱기술·보안기술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지자체·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했으며, 공급자인 방송사를 대표해서 참석한 KBS 김철성 부장은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공급하는 입장에서 DTV전환, 난시청 해소, 서비스추가 가능성 등 방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정삼 과장은 “우선 DTV전환이 2013년에야 완료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야 활용가능한 대역을 분석할 수 있고, 관련 시뮬레이션과 전파조사가 면밀히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TV유휴대역 서비스의 적정 진입시기는 2014년 초로 예상하고, 올해 12월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평 제54화 수신호 잘못된 교통경찰 김성훈

방통위 재송신 정책 난조로 3중 추돌

『MAC & Linux과정』 교육 안내문

과 정 소 개

- MAC OS에 대한 이해 및 시스템 관리자의 MAC OS 장애 해결법 숙지
- Linux 개요 및 관리 실무

일 정

- 1차 : 4월 13일 ~ 4월 15일 (수 - 금 / 2박3일)
- 2차 : 8월 10일 ~ 8월 12일 (수 - 금 / 2박3일)

장 소 : KBS 수원 연수시설 이론 강의실

세부 커리큘럼

일차	시간	과목명	추천강사
1일차	09:30 - 10:00	교육안내	FCP공인강사
	10:00 - 12:00	MAC 개요 및 운용법	
	12:00 - 13:00	중식	
	13:00 - 14:00	MAC 장애 발생 사례 및 해결 방안	
	14:00 - 15:30	리눅스 개요	
2일차	15:30 - 18:00	리눅스 설치 및 작업 설정	중앙정보처리학원 양성소
	09:00 - 12:00	[리눅스 시스템 관리] 시스템 명령어, 문서 편집기, 리눅스 부트 과정 이해, 부트로더	
	12:30 - 13:00	중식	
3일차	13:00 - 18:00	[리눅스 시스템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파일시스템 관리, 디스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셸 관리	중앙정보처리학원 양성소
	09:00 - 12:00	[서버 구축 실무] TCP/IP 네트워크 설정, OpenSSH 서버, 네임서버, 웹서버	
	12:00 - 13:00	중식	
	13:00 - 14:30	[서버 구축 실무] 메일서버, FTP서버, NFS 서버	
	14:30 - 16:00	[시스템 보안] 방화벽(ipables)	
	16:00 - 17:00	설문조사	

상기 사항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방송사별 배정인원 (총 30명)

방송사	배정인원	비고
KBS	10	추가 배정가능 1, 2차 전체 배정 인원
MBC	6	
SBS	4	
EBS	2	
지역 민방 및 기타	8	
합 계	30	

접수방법

- 4월 11일(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gitalpro.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각사 교육담당자의 교육인원 확정 후 교육생이 직접 온라인 접수

기 타

- 교육비 : 무료
- 교육생 출장비는 각사 자체부담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방송협회 경영지원팀 김주옥 (02-781-5163~4), KBS 미래미디어운영부 디지털방송기술교육센터(031-219-8261~4)로 연락 바랍니다.